

WEBVTT

00:00:11.712 --> 00:00:12.327

안녕하십니까?

00:00:12.427 --> 00:00:13.539

역사에 미시다 서익환 선생님입니다.

00:00:13.639 --> 00:00:19.040

우리 근대문물의 수용과 문화의
새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19.140 --> 00:00:22.437

먼저 우리가 볼 게
근대문물과 관련된 내용인데

00:00:22.537 --> 00:00:25.369

어찌 됐든 우리가
1876년에 개항을 하지.

00:00:25.469 --> 00:00:29.374

그러면 서양 문물들이 계속
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.

00:00:29.474 --> 00:00:34.239

그런데 이 근대문물과
관련된 양면성이 있어.

00:00:34.339 --> 00:00:36.055

넘기면서 바로 가봅시다.

00:00:36.155 --> 00:00:39.288

이 근대 시설 유입이
쭉 들어오는데요.

00:00:39.388 --> 00:00:45.214

이 양면성이 뭐냐면, 일단
철도를 예로 들어보자.

00:00:45.314 --> 00:00:50.313

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우리가
보겠지만 경인선이야.

00:00:50.413 --> 00:00:53.330

그러면 서울과 인천을
연결하는 철도였거든?

00:00:53.430 --> 00:00:57.879

예전에는 인천을 가려면
서울에서 뭐 타고 가니?

00:00:57.979 --> 00:01:01.046

걸거나 말 타고
가는 수밖에 없습니다.

00:01:01.146 --> 00:01:04.226

그런데 철도가 마련이 되었다.

00:01:04.326 --> 00:01:06.467

엄청나게 편안해.

00:01:06.567 --> 00:01:11.932
그래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준다는
거죠, 근대문물이라는 게.

00:01:12.032 --> 00:01:12.810
편하지.

00:01:12.910 --> 00:01:17.105
그런데 이거를 일본
애들이 만들어줬단다.

00:01:17.205 --> 00:01:23.467
물론 시설 비용을
차관으로 물려버리면서.

00:01:23.567 --> 00:01:27.821
그러면 일본은 이랬겠니?
잘 들어봐.

00:01:27.921 --> 00:01:31.895
조선인들이 서울에서 인천가는
게 너무 불편해 보인다.

00:01:31.995 --> 00:01:35.695
그래서 애네들을 편리하게
철도 하나 만들어주자.

00:01:35.795 --> 00:01:40.897
이렇게 만들었겠니, 아니면
자기들이 이용하고자 만들었겠니.

00:01:40.997 --> 00:01:47.078
당연히 침략성이죠.

00:01:47.178 --> 00:01:50.108
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
만들었다는 거죠.

00:01:50.208 --> 00:01:53.764
그래서 이 근대시설은 항상
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야.

00:01:53.864 --> 00:01:57.847
하나는 편리성, 또 하나는
침략성을 내포하고 있다.

00:01:57.947 --> 00:02:06.265
선생님이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,
편리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.

00:02:06.365 --> 00:02:11.913
봐라, 어찌 됐든 철도가 만들어져서
우리 민중이 편해진 거 아니냐.

00:02:12.013 --> 00:02:15.525
이렇게 가는 학자들이 있습니다.

00:02:15.625 --> 00:02:19.540
반면에 침략성에 더 방점을
두는 학자들이 있어.

00:02:19.640 --> 00:02:23.169

이쪽이 오리지널
역사 학계가 됩니다.

00:02:23.269 --> 00:02:28.563

그리고 이쪽은 약간 경제적인
측면에 치우쳐진 학자들입니다.

00:02:28.663 --> 00:02:29.847

봐라, 편하지 않냐.

00:02:29.947 --> 00:02:30.669

이렇게 가는 거예요.

00:02:30.769 --> 00:02:33.675

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00:02:33.775 --> 00:02:35.893

골라봐.

00:02:35.973 --> 00:02:40.019

그래서 근대시설을 보면
이렇게 간다는 거죠.

00:02:40.119 --> 00:02:45.415

일단 흥선대원군 집권기에
무기에만 관심이 있었어.

00:02:45.515 --> 00:02:47.452

어찌 됐든 쇄국정책이었죠?

00:02:47.552 --> 00:02:51.912

그리고 개항 이후부터 서양 기술을
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.

00:02:52.012 --> 00:02:55.045

먼저 출판부터 나오는데
여기 하나 적어놓을게.

00:02:55.145 --> 00:03:00.515

근대시설은 양면성이 있다는
것만 적어놓을게요.

00:03:01.492 --> 00:03:04.740

양면성이 뭐였더라?
편리성과 침략성이다.

00:03:04.840 --> 00:03:06.057

그러면 먼저 출판이야.

00:03:06.157 --> 00:03:08.144

박문국.

00:03:08.244 --> 00:03:12.020

웬지 사람 이름처럼 생겼죠.

00:03:12.120 --> 00:03:16.814

하지만 이거는 인쇄소야.

00:03:16.914 --> 00:03:21.080

그러면 인쇄물을 만들었겠네?

00:03:21.180 --> 00:03:22.687

이건 국가에서 만든
인쇄소이기 때문에

00:03:22.787 --> 00:03:24.823

여기서 인쇄물을 찍어서
막 뿌렸던 거예요.

00:03:24.923 --> 00:03:30.309

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
한성순보가 되는 거예요.

00:03:30.409 --> 00:03:31.716

그리고 두 번째, 광인사.

00:03:31.816 --> 00:03:35.049

이것도 출판과 관련된 인쇄소,
이렇게 보면 되겠고요.

00:03:35.149 --> 00:03:36.714

이게 국립이야.

00:03:36.814 --> 00:03:41.590

그다음에 전기 통신해서
나오는데 전신이 있습니다.

00:03:41.690 --> 00:03:45.418

서울에서 인천, 이게
최초의 전신인데요.

00:03:45.518 --> 00:03:49.567

전신이 영화 같은 데 보면
뚝뚝, 이런 거 있잖아.

00:03:49.667 --> 00:03:51.374

그런 것들이 전신이 되겠고요.

00:03:51.474 --> 00:03:52.792

그다음에 전등.

00:03:52.892 --> 00:03:56.113

이 전등은 어디에 처음으로
불을 밝히게 되냐면,

00:03:56.213 --> 00:03:56.973

궁궐입니다.

00:03:57.073 --> 00:04:00.601

경복궁에 처음으로 전등이
가설되기도 해요.

00:04:00.701 --> 00:04:02.948

그래서 민간에 보급되기는 일러.

00:04:03.048 --> 00:04:06.501

민간에는 1900년대
와서야 보급이 됩니다.

00:04:06.601 --> 00:04:08.540

전등이 편리하기는 하죠.

00:04:08.648 --> 00:04:13.414

그다음에 전화, 이 전화는
1898년입니다.

00:04:13.506 --> 00:04:17.444

이게 어디에 있었냐면,
경운궁에 있었어요.

00:04:17.544 --> 00:04:18.806

지금의 덕수궁이죠?

00:04:18.906 --> 00:04:22.445

이때 전화가 가설되기도 합니다.

00:04:22.545 --> 00:04:25.685

이 전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.

00:04:25.785 --> 00:04:27.504

뭐가 있냐면, 한번
이야기를 했을 거야.

00:04:27.604 --> 00:04:29.319

김구와 관련된 일대가지?

00:04:29.419 --> 00:04:34.919

김구가 어떻게 민족주의자가
되어버리냐면,

00:04:35.019 --> 00:04:37.615

을미사변 이후에 김구가
누구를 때려죽였냐?

00:04:37.715 --> 00:04:44.015

일본 장교를 손으로 때려죽인 거예요.
장난 아니죠?

00:04:44.115 --> 00:04:47.187

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.

00:04:47.287 --> 00:04:52.847

그런데 기록에 따르면, 이게
고종이 쓴 기록에 따르면인데

00:04:52.947 --> 00:04:56.247

약간 시점에 대한
실수가 있었나 봐요.

00:04:56.347 --> 00:04:59.967

그래서 이 고종이 이
김구가 처형당하기 전에,

00:05:00.067 --> 00:05:03.750

인천에서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.

00:05:03.850 --> 00:05:07.962

고종이 선잠에 빠졌는데
선왕들이 막 나온 거예요.

00:05:08.062 --> 00:05:14.359

그래서 지금 당장 인천에서 저 사람을

살려야 된다고 꿈을 꿔대요.

00:05:14.459 --> 00:05:19.583
그래서 살려라, 라고 처음으로 전화를
썼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.

00:05:19.683 --> 00:05:21.414
명확하진 않습니다.

00:05:21.514 --> 00:05:22.999
어찌 됐든 전화 들어오고요.

00:05:23.099 --> 00:05:24.390
그다음 우편.

00:05:24.490 --> 00:05:26.581
이 우편은 우리가
이런 것들이 있었다.

00:05:26.681 --> 00:05:30.114
우정국이 있었죠.

00:05:30.214 --> 00:05:34.133
이게 1884년이야.

00:05:34.233 --> 00:05:39.792
그런데 이 우정국은 보빙사 일행들이
미국 갔다 와서 만든 건데요.

00:05:39.892 --> 00:05:41.901
이게 불타버리잖아.

00:05:42.001 --> 00:05:42.970
왜 불탔습니까?

00:05:43.070 --> 00:05:46.751
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지.

00:05:46.851 --> 00:05:49.367
그래서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야.

00:05:49.467 --> 00:05:51.048
그래서 다시 만든 거예요.

00:05:51.148 --> 00:06:01.897
다시 만든 게 1895년 언제?
을미개혁 시기에 다시 만들어지게 된다.

00:06:01.997 --> 00:06:05.059
그다음에 의료 보도록 할게요.

00:06:05.159 --> 00:06:08.574
이 의료를 보면 먼저
광혜원, 광제원 쪽 있는데

00:06:08.674 --> 00:06:14.270
여러분이 알아둘 거는 이 광혜원
하나만 잘 알아두면 돼.

00:06:14.370 --> 00:06:19.826
이게 우리나라 최초의

근대식 병원이 됩니다.

00:06:19.926 --> 00:06:22.637

이런 최초 타이틀이 붙는
건 잘 알아둬야 되겠죠.

00:06:22.737 --> 00:06:24.857

그러면 누가 만들었는가.

00:06:24.957 --> 00:06:26.474

선교사가 만듭니다.

00:06:26.574 --> 00:06:32.465

선교사 알렌이 이렇게 만들어.

00:06:32.565 --> 00:06:39.480

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,
민영익일 거예요.

00:06:39.580 --> 00:06:41.012

민씨 척족이잖아.

00:06:41.112 --> 00:06:44.885

그런데 갑신정변 당시에 급진개화파,

00:06:44.985 --> 00:06:48.772

그다음에 민영익은 민씨
척족이고 원래 급진파였는데

00:06:48.872 --> 00:06:53.676

명성황후가 가장 좋아했던
사촌 동생일까 그럴 거야.

00:06:53.776 --> 00:06:58.540

그런데 이 민영익이 원래는
김옥균, 박영효 한 덩어리였어요.

00:06:58.640 --> 00:07:07.303

그런데 민영익이 어디 갔다 오냐면,
보빙사 일행으로 미국을 다녀와.

00:07:07.403 --> 00:07:09.651

가서 충격을 받아버립니다.

00:07:09.751 --> 00:07:12.888

세상이 너무 발전되어있는 거예요.

00:07:12.988 --> 00:07:14.514

그래서 돌아와서 안 되겠다.

00:07:14.614 --> 00:07:17.198

문호를 확실하게 개방을 하면

00:07:17.298 --> 00:07:20.070

우리의 전통문화가 다 사라질
것이다, 라고 하면서

00:07:20.170 --> 00:07:24.796

급진파에서 나와서 온건파로
들어가게 됩니다.

00:07:24.896 --> 00:07:27.293

급진파의 입장에서는
배신자가 되는 거죠.

00:07:27.393 --> 00:07:31.107

마침 급진파들이
갑신정변을 일으켰네.

00:07:31.207 --> 00:07:34.318

그때 민영익이 뒤에서
칼을 맞습니다.

00:07:34.418 --> 00:07:35.517

크게 칼을 맞아요.

00:07:35.617 --> 00:07:38.791

그래서 거의 생사를
넘나들고 있었어.

00:07:38.891 --> 00:07:40.982

명성황후가 가장 아끼는
사람이었어요.

00:07:41.082 --> 00:07:46.152

그래서 그때 선교사 알렌,
이 사람이 고쳐준 거야.

00:07:46.252 --> 00:07:49.846

고쳤다고 하니까 로봇처럼
생각하는데 치료를 해준 거지.

00:07:49.946 --> 00:07:51.292

그래서 나온 거예요.

00:07:51.392 --> 00:07:55.418

명성황후 입장에서는, 명성황후는
통이 큰 여자잖아요.

00:07:55.518 --> 00:08:00.710

그래서 야, 너 뭘 원하냐, 다
이야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.

00:08:00.810 --> 00:08:02.453

했더니 병원 하나 지을까요?

00:08:02.553 --> 00:08:04.461

그게 광혜원이 되는 거죠.

00:08:04.561 --> 00:08:05.901

최초의 근대식 병원이고.

00:08:06.001 --> 00:08:09.749

그러면 광혜원 자리는 건물이
있어야 될 거 아니냐.

00:08:09.849 --> 00:08:10.929

건물이 있었단다.

00:08:11.029 --> 00:08:17.013

급진개화파 갑신정변 때 김옥균, 박영효,
서재필은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.

00:08:17.113 --> 00:08:22.236
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홍영식이라는
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.

00:08:22.336 --> 00:08:23.321
급진파였어.

00:08:23.421 --> 00:08:28.519
그래서 홍영식 집에
광혜원을 만든 거예요.

00:08:28.619 --> 00:08:30.461
누가? 선교사 알렌이.

00:08:30.561 --> 00:08:38.276
그리고 통 큰 여자 명성황후는
또 광산을 줍니다, 금광.

00:08:38.376 --> 00:08:39.221
금광을 주는 거야.

00:08:39.321 --> 00:08:44.107
그러면 애는 여기에 관심이 많았겠니,
금광에 관심이 많았겠니.

00:08:44.207 --> 00:08:45.390
당연히 금광 아닙니까.

00:08:45.490 --> 00:08:49.535
그래서 결국은 1885년
광혜원을 만들었는데

00:08:49.635 --> 00:08:51.017
가는 거야, 빠져요.

00:08:51.117 --> 00:09:01.230
그래서 이게 1886년에
제중원으로 개칭이 되는 거야.

00:09:01.330 --> 00:09:05.411
제중원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던
거로 기억을 해.

00:09:05.511 --> 00:09:07.182
이게 근대식 병원입니다.

00:09:07.282 --> 00:09:10.028
최초는 광혜원이고 제중원으로
이름이 바뀌었다.

00:09:10.128 --> 00:09:12.138
그리고 한 번 이야기했었나?

00:09:12.238 --> 00:09:16.519
서울대 병원,
서울대학병원 있잖아요.

00:09:16.619 --> 00:09:24.556
혜화동 쪽에 가면 있는데
그쪽에 궁궐이 있어.

00:09:24.656 --> 00:09:26.071
그게 창덕궁이죠.

00:09:26.171 --> 00:09:28.845
창덕궁 옆에 창경궁이 있고요.

00:09:28.945 --> 00:09:34.050
그래서 창덕궁은 한번
이야기를 했을 거야.

00:09:34.150 --> 00:09:39.878
거기 가서 간호사라든지 의사
팔쪽을 보면 세종원 몇 년.

00:09:39.978 --> 00:09:41.209
이렇게 적혀 있어요.

00:09:41.309 --> 00:09:45.519
그게 서울대학병원의 전신입니다.

00:09:45.619 --> 00:09:47.621
선교사 알렌 이거는
꼭 기억해야 돼.

00:09:47.721 --> 00:09:51.073
그다음에 대표적인 기독교와
관련된 세브란스 병원.

00:09:51.173 --> 00:09:52.417
그다음에 자혜의원.

00:09:52.517 --> 00:09:54.465
이거는 뭐냐면, 지방이야.

00:09:54.565 --> 00:09:57.563
지방에도 이런 의원들이
만들어졌었다.

00:09:57.663 --> 00:10:02.350
하지만 여러분은 광혜원만
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

00:10:02.450 --> 00:10:05.494
그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
이제 교통과 관련된 내용.

00:10:05.594 --> 00:10:07.872
이 교통이 중요하겠죠.

00:10:07.972 --> 00:10:11.409
교통 보면 먼저 전차가 있습니다.

00:10:11.509 --> 00:10:19.592
이거는 대한제국 시기에
만들어진 전차.

00:10:19.692 --> 00:10:20.919
전차가 뭐니까?

00:10:21.019 --> 00:10:28.408

전차는 예전 시대극 같은 데 보면 길거리
들어가는 짧은 기차 같은 거잖아.

00:10:28.508 --> 00:10:30.616
그래서 우리가 트램이라고
이야기하죠?

00:10:30.716 --> 00:10:34.390
외국에서는 트램, 노상을
지나다니는 거 있잖아.

00:10:34.490 --> 00:10:39.365
그래서 유럽을 가면
트램 많이 다니죠.

00:10:39.465 --> 00:10:41.878
선생님이 프라하를 한번 가봤어.

00:10:41.978 --> 00:10:44.186
되게 좋은 도시잖아,
체코의 프라하.

00:10:44.286 --> 00:10:47.688
갔는데 프라하도 트램들이
진짜 많이 다니더라고.

00:10:47.820 --> 00:10:50.325
그다음에 일본에도 트램들이
있는 곳들이 꽤 많죠.

00:10:50.425 --> 00:10:53.035
나가사키 그쪽 가면
트램들이 꽤 있습니다.

00:10:53.135 --> 00:10:56.847
트램으로 많이 이동을 하더라고.

00:10:56.947 --> 00:11:00.348
어찌 됐든 여러분도 나중에
한번 봐보십시오.

00:11:00.448 --> 00:11:03.670
이 대한제국 때 이런
전차를 딱 만든 거야.

00:11:03.770 --> 00:11:08.559
이게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,
네 번째인가 그래요.

00:11:08.659 --> 00:11:10.577
그 당시 미국에도 없었대요.

00:11:10.677 --> 00:11:12.243
그런데 대한제국에서 만든 거예요.

00:11:12.343 --> 00:11:17.024
대한제국은 이때 고종황제가
광무개혁이라는 걸 하죠?

00:11:17.124 --> 00:11:18.801
그래서 선생님이 이제까지는

00:11:18.901 --> 00:11:22.094

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 대해서
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.

00:11:22.194 --> 00:11:26.543

먼저 광무개혁하면
구본신참이라는 키워드가 나와.

00:11:26.643 --> 00:11:27.900

여기서 다시 정리할게요.

00:11:28.000 --> 00:11:29.531

구본신참, 이게 뭐냐면,

00:11:29.631 --> 00:11:33.964

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
참여시키겠다는 의미가 됩니다.

00:11:34.064 --> 00:11:35.775

천천히 개혁을 진행하겠다.

00:11:35.875 --> 00:11:38.034

그리고 근대시설들을 많이 도입하는데

00:11:38.134 --> 00:11:44.506

그래서 서울에 시가지 자체가
막 달라지는 거야.

00:11:44.606 --> 00:11:46.495

그리고 전차도 놓이게 되는 거야.

00:11:46.595 --> 00:11:52.392

그래서 예전에 프랑스 공사로 있다가
임기가 다 돼서 프랑스로 돌아갔던 애가

00:11:52.492 --> 00:11:59.171

다시 대한제국으로
여행을 온 거예요.

00:11:59.271 --> 00:12:01.541

프랑스에도 전차가 없었거든.

00:12:01.641 --> 00:12:06.389

그런데 그 프랑스 공사가 서울이
이렇게 달라졌냐, 라고 하면서

00:12:06.489 --> 00:12:08.343

깜짝 놀랐다고 하는
기록도 있습니다.

00:12:08.443 --> 00:12:10.550

그만큼 빨랐어요.

00:12:10.650 --> 00:12:17.306

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,
이게 1899년입니다.

00:12:17.435 --> 00:12:22.673

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
전차는 전기로 다니잖아요.

00:12:22.773 --> 00:12:25.365

그러면 전기를 계속
만들어야 될 거 아니니.

00:12:25.465 --> 00:12:29.206

그래서 대한제국 때 만든 게
뒤에 나오는데 뭐냐면,

00:12:29.306 --> 00:12:37.510

한성전기 회사를 만들어.
전기 회사예요.

00:12:37.610 --> 00:12:42.785

미국과 합작을 해서 전기
회사를 1898년에 만든다.

00:12:42.885 --> 00:12:44.378

그리고 여기서 전기가 나오겠죠.

00:12:44.478 --> 00:12:48.449

이걸 가지고 전차를 만들었던 거야.

00:12:48.549 --> 00:12:51.811

사람들이 이 전차를 타면서
너무 편리했겠네요,

00:12:51.911 --> 00:12:53.958

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
왔다 갔다 하기가.

00:12:54.058 --> 00:12:56.486

은근 여기가 거리가 있는데.

00:12:56.586 --> 00:12:58.780

그런데 문제가 생긴다.

00:12:58.880 --> 00:13:04.844

뭐가 있냐면, 야간에도 운행했었어.

00:13:04.944 --> 00:13:07.071

전기는 계속 생산되잖아.

00:13:07.171 --> 00:13:11.760

야간에도 운행이 됐는데 우리 민족은
또 흥을 즐기는 민족 아닙니까.

00:13:11.860 --> 00:13:16.972

끝나면 친구들과 맥주도 먹고
이런 어른들이 있잖아요.

00:13:17.072 --> 00:13:24.059

막걸리도 먹고 이렇게 다니다가
이 전차에 치어 죽는 거예요.

00:13:24.159 --> 00:13:25.422

그래서 시간을 조정합니다.

00:13:25.522 --> 00:13:28.746

10시부터 5시인가 그럴 거예요.

00:13:28.846 --> 00:13:31.245
그게 서대문~청량리 전차입니다.

00:13:31.345 --> 00:13:32.667
그렇게 빨랐다는 거죠.

00:13:32.767 --> 00:13:33.974
그러면 봐.

00:13:34.074 --> 00:13:34.864
10시부터 5시.

00:13:34.964 --> 00:13:38.225
그러면 야간에도 뭐가 생산돼요?
전기.

00:13:38.325 --> 00:13:40.313
그러면 남는 전기를 어떻게?

00:13:40.413 --> 00:13:41.524
가동을 해야 되겠지.

00:13:41.624 --> 00:13:46.352
그래서 도시 서울에 가로등을
막 심기 시작하는 거야.

00:13:46.494 --> 00:13:50.343
그래서 서울이 되게
환해지게 된 거죠.

00:13:50.443 --> 00:13:52.498
그다음에 철도입니다.

00:13:52.598 --> 00:13:59.685
이 철도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게
일본에 의해서 가설이 되는 거야.

00:13:59.785 --> 00:14:03.374
먼저 우리나라 최초의
철도 경인선이죠.

00:14:03.474 --> 00:14:07.804
이 경인선은 원래 누가 짓고 있다가?
미국이 짓고 있다가

00:14:07.904 --> 00:14:11.396
어디에 넘겨줘 버렸다?
일본에 넘겨줘 버렸다.

00:14:11.496 --> 00:14:13.082
그다음에 경부선.

00:14:13.182 --> 00:14:15.464
이거는 서울과 부산이에요.

00:14:15.564 --> 00:14:16.763
일본에 의해서 가설.

00:14:16.863 --> 00:14:17.829
그다음에 경의선.

00:14:17.929 --> 00:14:20.187
이거는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,

00:14:20.287 --> 00:14:22.001
프랑스에서 가지고 있었습시다.

00:14:22.101 --> 00:14:23.631
그러다가 누구한테 줘버렸다?

00:14:23.731 --> 00:14:25.887
일본에게 줘버린 거야.

00:14:26.021 --> 00:14:30.483
그다음에 경원선, 일본이
가설하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,

00:14:30.583 --> 00:14:34.367
앞서도 이야기했지만, 이거는
최초의 철도 1899년 가고요.

00:14:34.467 --> 00:14:40.553
그다음에 이 두 개, 경부선과
경의선은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가.

00:14:40.653 --> 00:14:42.747
이거는 완성됐을 때 시점이에요.

00:14:42.847 --> 00:14:44.812
언제부터 삼을 뺏는가.

00:14:44.912 --> 00:14:53.525
러일 전쟁 기간에 시작하는 거예요.

00:14:53.625 --> 00:14:56.283
이거는 우리가 지도로
보면 알 수 있을 거야.

00:14:56.383 --> 00:15:01.156
그다음에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
건 일제강점기 1914년.

00:15:01.256 --> 00:15:03.704
그다음에 호남선, 전라도
쪽으로 가는 것도

00:15:03.804 --> 00:15:07.934
일제강점 시대 때 만들어지는
거야, 봐 봐.

00:15:08.034 --> 00:15:10.655
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?

00:15:10.755 --> 00:15:14.998
한반도가 이렇게 있죠.

00:15:15.098 --> 00:15:18.505
그러면 먼저 거점이 서울이야.

00:15:18.605 --> 00:15:20.839
여기가 서울이죠?

00:15:20.939 --> 00:15:22.698
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뭐라고요?

00:15:22.798 --> 00:15:26.512
이렇게 만들어진 거지.

00:15:26.612 --> 00:15:30.935
이게 경인선이 되겠죠.

00:15:33.645 --> 00:15:38.045
최초의 철도 1899년 미국이
짓다가 결국 일본이 완성.

00:15:38.145 --> 00:15:42.270
일본에 의해서 완성이
되었다, 최초의 철도 됐어.

00:15:42.370 --> 00:15:45.950
그다음에 선생님이 아까
이야기했던 이 내용이야.

00:15:46.050 --> 00:15:50.782
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부산입니다.

00:15:50.882 --> 00:15:57.931
이게 무슨 선? 경부선이 되겠죠.

00:15:58.031 --> 00:16:00.741
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.

00:16:00.841 --> 00:16:03.432
여기가 의주야.

00:16:03.532 --> 00:16:06.069
이렇게 연결되는 거야.

00:16:06.169 --> 00:16:13.282
이게 경의선이 됩니다.

00:16:13.382 --> 00:16:14.648
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.

00:16:14.748 --> 00:16:21.582
이 경의선, 그다음에 경부선은
어느 전쟁 중에 시작이 되었다?

00:16:21.682 --> 00:16:27.854
이게 러일 전쟁 기간 중에
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.

00:16:27.954 --> 00:16:32.615
그래서 만들어진 게 1905년,
1906년이 됩니다.

00:16:32.715 --> 00:16:34.996
침략적 의도가 보이지.

00:16:35.096 --> 00:16:35.876
뭐가 보입니까?

00:16:35.976 --> 00:16:40.435

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승기를 잡으니까 막 만든 거예요.

00:16:40.535 --> 00:16:42.928
일본 여기 있네.

00:16:43.028 --> 00:16:46.276
경부선을 타고 어디로 가?

00:16:46.376 --> 00:16:48.083
쪽 올라간다.

00:16:48.183 --> 00:16:52.805
일본 애들이 한반도에 만족했습니까?

00:16:52.905 --> 00:16:55.806
아니잖아, 어디까지?

00:16:57.705 --> 00:17:00.504
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
했던 거예요.

00:17:00.604 --> 00:17:04.096
그래서 하나의 길을
이렇게 만든 거야.

00:17:04.196 --> 00:17:08.422
이게 러일 전쟁 중에 가설된
경부선과 경의선입니다.

00:17:08.522 --> 00:17:12.151
침략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거죠.

00:17:12.251 --> 00:17:17.578
실제 경의선은 남쪽에.

00:17:17.678 --> 00:17:21.196
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는
분단국가니까 이렇게 잘려있죠?

00:17:21.296 --> 00:17:24.917
남쪽에는 경의선이 만들어졌어요.

00:17:25.017 --> 00:17:30.489
김대중 정부 때 김정일과
정상회담을 했거든.

00:17:30.589 --> 00:17:36.419
정상회담을 하면서 경의선을
복구하자, 라고 선언을 했어요.

00:17:36.519 --> 00:17:39.464
그래서 남쪽은 만들었고 북한은
만들어지진 않았습시다.

00:17:39.564 --> 00:17:40.766
다 만들어지진 않았어요.

00:17:40.866 --> 00:17:42.904
북한 군부의 반대가
있었다고 그래요.

00:17:43.004 --> 00:17:46.549

어찌 됐든 이게 만약에
이어지게 된다.

00:17:46.649 --> 00:17:49.116

그러면 이게 가동이 되는 거야.

00:17:49.216 --> 00:17:51.370

여러분, 내가 만약에
부산에 살아요.

00:17:51.470 --> 00:17:54.469

그러면 경부선을 타고
올라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?

00:17:54.569 --> 00:17:58.595

경의선을 타고 압록강 유역까지
가서 여기에 만주 철도가 있거든.

00:17:58.695 --> 00:18:00.868

만주 철도 조금만 이르면 돼요.

00:18:00.968 --> 00:18:03.988

그리고 조금 올라가면
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있어.

00:18:04.088 --> 00:18:10.959

그리고 유럽으로
갈 수 있는 거예요.

00:18:11.059 --> 00:18:12.868

그러니까 여기가 동쪽의 끝이잖아요.

00:18:12.968 --> 00:18:16.436

동쪽의 끝에서 서쪽으로
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.

00:18:16.536 --> 00:18:20.042

뭘 타고? 기타 타고.

00:18:20.142 --> 00:18:22.082

그런데 완전 오래 걸리긴 해.

00:18:22.182 --> 00:18:25.359

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
뭉의 이득이 많은가.

00:18:25.459 --> 00:18:27.142

사람이 나 급한 일이 있어요.

00:18:27.242 --> 00:18:30.088

유럽으로 철도 타고 가야지.

00:18:30.188 --> 00:18:31.592

못 간다니까, 이거?

00:18:31.692 --> 00:18:33.366

몇 날 며칠이 걸리니까.

00:18:33.466 --> 00:18:38.361

그런데 이거는 물자 수송.

00:18:38.461 --> 00:18:40.389
첨단기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.

00:18:40.489 --> 00:18:42.306
보통 배로 보내거든.

00:18:42.406 --> 00:18:43.287
배나 항공이죠.

00:18:43.387 --> 00:18:44.708
항공은 너무 비싸.

00:18:44.808 --> 00:18:50.307
그래서 보통 배로 보내는데 배보다
철도가 훨씬 빨라, 더 안전하고.

00:18:50.407 --> 00:18:54.352
그래서 수많은 이득을
얻을 수 있다는 거죠.

00:18:54.452 --> 00:18:55.398
만약 이렇게 되잖아?

00:18:55.498 --> 00:18:58.449
그러면 제일 소외되는
게 어딘지 아십니까?

00:18:58.549 --> 00:18:59.772
일본입니다.

00:18:59.872 --> 00:19:02.591
일본이 완전 섬으로
박혀있게 되는 거야.

00:19:02.691 --> 00:19:04.873
우리는 완전 대륙으로
이어지게 되는 거고요.

00:19:04.973 --> 00:19:08.215
그래서 일본은 곤란을 겪을 거야.

00:19:08.315 --> 00:19:10.818
그래서 일본이 맨날
이야기하는 거 있잖아.

00:19:10.918 --> 00:19:13.672
해저터널을 뚫자.

00:19:13.772 --> 00:19:17.282
그러면 일본이 또 대륙이랑
연결되는 거거든.

00:19:17.382 --> 00:19:19.451
그러면 우리가 뚫겠니? 안 뚫지.

00:19:19.551 --> 00:19:23.929
그래서 일본이 부담을 더 많이
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.

00:19:24.029 --> 00:19:27.473

이렇게 가는 거죠.

00:19:27.573 --> 00:19:28.460

영국 보세요.

00:19:28.560 --> 00:19:35.030

영국도 프랑스랑 도버해협 해서
터널 뚫었잖아, 해저터널.

00:19:35.130 --> 00:19:36.579

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거죠.

00:19:36.679 --> 00:19:40.392

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.

00:19:40.492 --> 00:19:44.018

어찌 됐든 이렇게 경부선,
경의선까지 살펴봤습니다.

00:19:44.118 --> 00:19:46.330

중요한 내용이야.

00:19:46.430 --> 00:19:50.648

그다음에 우리가
볼 거는 건축입니다.

00:19:50.748 --> 00:19:51.901

약현성당.

00:19:52.001 --> 00:19:58.918

이 성당 자체가 되게 예뻐합니다.

00:19:59.018 --> 00:20:00.101

가톨릭 성당이잖아?

00:20:00.201 --> 00:20:06.636

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여기서
결혼식을 진짜 많이 해.

00:20:06.736 --> 00:20:10.073

내부가 되게 아름답게 되어있어요.

00:20:10.173 --> 00:20:12.800

그래서 웃긴 건 이것을 다 모아.

00:20:12.900 --> 00:20:14.821

결혼할 사람 하면 막
신청할 거 아니니.

00:20:14.921 --> 00:20:19.558

그런데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
나중에 예비뽑기한다고 들었어.

00:20:19.698 --> 00:20:23.187

그다음에 독립문, 독립협회에서 만든 거죠?
영은문을 허물고.

00:20:23.287 --> 00:20:25.321

그다음에 명동성당
아까 말씀드렸고요.

00:20:25.421 --> 00:20:29.003

덕수궁 석조전, 그다음에
중명전, 손탁호텔.

00:20:29.103 --> 00:20:31.679

이런 근대식 건축물이
들어오기도 했다.

00:20:31.779 --> 00:20:33.433

여기서 중요한 건 연도야.

00:20:33.533 --> 00:20:35.760

명동성당, 덕수궁 석조전.

00:20:35.860 --> 00:20:38.228

이 연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20:38.328 --> 00:20:43.851

명동성당 1898년, 덕수궁
석조전 1910년 이렇게.

00:20:43.951 --> 00:20:45.699

서양식 건축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.

00:20:45.799 --> 00:20:50.140

그다음에 중요한 신문 발행과
관련된 내용입니다.

00:20:50.240 --> 00:20:51.660

신문 발행은 밑에 볼게요.

00:20:51.760 --> 00:20:53.852

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있습니다.

00:20:53.952 --> 00:20:57.036

그 신문이 한성순보가 되는 거야.

00:20:57.136 --> 00:21:00.989

이 한성순보는 어디서
편찬이 되었는가.

00:21:01.089 --> 00:21:01.956

우리 봤잖아.

00:21:02.056 --> 00:21:05.392

박문국 봤죠?

00:21:05.492 --> 00:21:07.462

박문국 인쇄소가 있었지.

00:21:07.562 --> 00:21:13.075

여기서 찍어낸 게 한성순보고
여기서 순 자가 보이지?

00:21:13.218 --> 00:21:16.878

이 순 자는 열흘이라는 뜻이죠.

00:21:16.978 --> 00:21:18.795

10일에 한 번씩 간행했다.

00:21:18.895 --> 00:21:20.786
한 달에 3번이야.

00:21:20.886 --> 00:21:22.386
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.

00:21:22.486 --> 00:21:25.936
그리고 뭐로 적혀있냐,
전부 한문입니다.

00:21:26.036 --> 00:21:30.342
순 한문으로 적혀있고
국가에서 편찬했기 때문에

00:21:30.442 --> 00:21:34.930
이것을 관보적인 성격이다,
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

00:21:35.030 --> 00:21:35.785
그런데 보세요.

00:21:35.885 --> 00:21:40.459
83년에서 84년, 깃해야
1년 반 정도 유지가 됩니다.

00:21:40.559 --> 00:21:43.942
그러다가 이게 폐간이 돼요.

00:21:44.042 --> 00:21:45.699
그랬다가 다시 살립니다.

00:21:45.799 --> 00:21:48.393
다시 살린 게 한성주보야.

00:21:48.493 --> 00:21:50.690
그러면 달라졌네, 뭐?

00:21:50.790 --> 00:21:54.026
예전에는 열흘에 한 번,
이제는 며칠에 한 번?

00:21:54.126 --> 00:21:56.083
7일에 한 번이라는 뜻이죠.

00:21:56.183 --> 00:21:57.619
그러면 한 달에 4번이야.

00:21:57.719 --> 00:22:00.179
예전에는 한 달에 3번이었고.

00:22:00.279 --> 00:22:02.397
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.

00:22:02.497 --> 00:22:03.664
돈이 없어요.

00:22:03.764 --> 00:22:05.744
신문으로 돈 벌 수
있는 방법이 있어요.

00:22:05.844 --> 00:22:15.523

뭐? 상업광고를 게재합니다.

00:22:15.623 --> 00:22:17.292

신문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죠.

00:22:17.392 --> 00:22:21.813

그래서 최초의 상업광고가 들어가는
게 한성주보가 되는 거야.

00:22:21.913 --> 00:22:25.336

연장선이라고 이렇게
보면 되겠습니다.

00:22:25.436 --> 00:22:29.741

그다음에 한성순보는 최초 딱지가
붙었으니까 너무 중요하고요.

00:22:29.841 --> 00:22:31.991

그다음에 우리가 봐야
되는 건 독립신문.

00:22:32.091 --> 00:22:36.521

당연히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서
이렇게 발행이 됩니다.

00:22:36.621 --> 00:22:38.479

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고요.

00:22:38.579 --> 00:22:40.426

그다음에 한글판과 영문판.

00:22:40.526 --> 00:22:42.664

영문판으로 만들어진 이유는

00:22:42.764 --> 00:22:47.444

우리나라 소식을 해외에도
알리기 위해서다, 라는 거.

00:22:47.544 --> 00:22:49.275

독립신문 민간 신문이고요.

00:22:49.375 --> 00:22:51.533

그다음에 제국신문이 있습니다.

00:22:51.633 --> 00:22:54.735

이 제국신문은 1898년.

00:22:54.835 --> 00:22:57.202

그러니까 대한제국
시기에 만들어진 건데

00:22:57.302 --> 00:22:59.236

누가 만들었니? 이종일.

00:22:59.336 --> 00:23:01.409

그리고 민족신문입니다.

00:23:01.509 --> 00:23:04.250

또한 뭐로 만들어졌는가,
이거 중요해.

00:23:04.350 --> 00:23:06.629

순 한글로 만들어졌어.

00:23:06.729 --> 00:23:09.275

그러면 독자층이 정해져 있겠죠.

00:23:09.375 --> 00:23:15.674

한글로 편찬을 했다는 것은
이들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.

00:23:15.774 --> 00:23:19.495

부녀자라든지 일반 서민들을
대상으로 합니다.

00:23:19.595 --> 00:23:21.709

이게 제국신문이야,
꼭 기억해야 돼요.

00:23:21.809 --> 00:23:24.346

순 한글 버전이었다.

00:23:24.446 --> 00:23:26.727

그다음에 황성신문이죠.

00:23:26.827 --> 00:23:32.434

이 황성신문은 초대 사장이
남궁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.

00:23:32.534 --> 00:23:38.065

그리고 2대 사장이 누구냐면,
그 유명한 장지연이야.

00:23:38.165 --> 00:23:39.921

장지연이 뭐 했습니까?

00:23:40.021 --> 00:23:42.697

시일야방성대곡 있었지?

00:23:42.797 --> 00:23:47.491

을사늑약에 대한 어떤 억울함,
분통을 터뜨린 거죠.

00:23:47.591 --> 00:23:52.344

그래서 황성신문 유생층을 대상으로
했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.

00:23:52.444 --> 00:23:58.258

그다음에 가장 메인적인
신문은 대한매일신보야.

00:23:58.358 --> 00:23:58.987

볼게요.

00:23:59.087 --> 00:24:00.218

양기탁과 베텔입니다.

00:24:00.318 --> 00:24:02.746

여기서 사장님이 누구냐, 베텔이야.

00:24:02.846 --> 00:24:05.369

베텔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.

00:24:05.469 --> 00:24:08.779
당시 일본은 영일 동맹이었거든.

00:24:08.879 --> 00:24:14.621
그랬기 때문에 이 베텔이
사장으로 있는 이 대한매일신보를

00:24:14.721 --> 00:24:21.628
없애고 싶고 탄압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
없었다는 거야, 영국인이었기 때문에.

00:24:21.728 --> 00:24:25.632
그래서 나중에 탄압하는 거야.

00:24:25.732 --> 00:24:29.250
그러면서 베텔을
추방시켜버리기도 합니다.

00:24:29.350 --> 00:24:32.491
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
건데 베텔이 추방당해요.

00:24:32.591 --> 00:24:35.889
그래서 영국에 추방당했겠지.

00:24:35.989 --> 00:24:42.292
그리고 베텔은 한국
이름이 배설이야.

00:24:42.392 --> 00:24:44.243
그만큼 한국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.

00:24:44.343 --> 00:24:50.194
그래서 영국에 가서도 일본의
어떤 침략적인 것들을

00:24:50.294 --> 00:24:54.240
계속 조선의 입장에서
쫓니다, 언론인으로서.

00:24:54.340 --> 00:24:59.256
그래서 외국인이지만 알고 보면 독립운동가
중의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00:24:59.356 --> 00:25:04.114
이런 외국인들이 꽤 있습니다.

00:25:04.214 --> 00:25:06.849
영국에서 그런 운동들을
많이 펼쳤고요.

00:25:06.949 --> 00:25:11.810
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
베텔에게 훈장을 줘요.

00:25:11.910 --> 00:25:16.752
그때는 상당히 노년이었겠죠.

00:25:16.852 --> 00:25:20.609
보세요, 대한매일신보가

1910년까지 있었던 거야.

00:25:20.709 --> 00:25:24.494
우리 해방이 언제 됐습니까?
1945년이잖아.

00:25:24.594 --> 00:25:27.447
그리고 정부 수립은 48년이거든.

00:25:27.547 --> 00:25:33.630
이때 완전 노인이 돼서 왔죠.

00:25:33.730 --> 00:25:37.612
그래서 훈장을 받고
우리나라에서 죽었죠.

00:25:37.712 --> 00:25:40.952
그리고 우리나라 땅에서
묻히기도 합니다.

00:25:41.052 --> 00:25:43.765
독립운동가 중의
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.

00:25:43.865 --> 00:25:46.204
그리고 한국 사람은 양기탁입니다.

00:25:46.304 --> 00:25:47.958
양기탁 어디서 나왔더라?

00:25:48.058 --> 00:25:49.466
국채보상운동에서 나왔지.

00:25:49.566 --> 00:25:54.153
그래서 국채보상운동에 기여했던 신문이
또 대한매일신보가 되겠고요.

00:25:54.253 --> 00:25:57.881
그다음에 한글판, 영문판,
국한문 다 나왔고

00:25:57.981 --> 00:26:00.053
항일운동의 선봉지였다.

00:26:00.153 --> 00:26:07.945
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는
최다 독자층이야.

00:26:09.264 --> 00:26:12.567
대한매일신보는 가장
대표적인 민족지였습니다.

00:26:12.667 --> 00:26:17.484
실제 서민들도 그렇고
유생들도 그렇고

00:26:17.584 --> 00:26:22.161
아침에 깨어나서 보는 신문이
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.

00:26:22.261 --> 00:26:25.897

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야.

00:26:25.997 --> 00:26:32.063

그다음에 만세보가 있는데 이
만세보는 천도교 기관지입니다.

00:26:32.163 --> 00:26:34.177

그러면 천도교는 뭘니까?

00:26:34.277 --> 00:26:37.662

종교에서 보겠지만 이
천도교는 이름이 바뀌어.

00:26:37.762 --> 00:26:41.229

뭐의 이름이 바뀌냐면, 동학입니다.

00:26:41.329 --> 00:26:49.295

원래 동학인데 동학의 지도자였던 손병희
선생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꿔버려요.

00:26:49.395 --> 00:26:51.882

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.

00:26:51.982 --> 00:26:57.333

이 동학의 지도자들이
있을 거 아닙니까.

00:26:57.433 --> 00:26:59.602

지도자는 잡혀가고요.

00:26:59.702 --> 00:27:01.706

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겠지.

00:27:01.806 --> 00:27:06.461

애네들이 전부 친일파들이었어요.

00:27:06.561 --> 00:27:09.567

그러면 이 동학 자체가
뭐로 변화되어버린 거야?

00:27:09.667 --> 00:27:12.308

친일단체로 변화돼버린 거거든.

00:27:12.408 --> 00:27:16.479

그래서 손병희 선생이
이름을 바꿉니다.

00:27:16.579 --> 00:27:17.918

그게 천도교가 되는 거죠.

00:27:18.018 --> 00:27:20.997

그래서 천도교의 기관지
만세보가 있었다.

00:27:21.097 --> 00:27:25.892

그러면 이 세 신문의
공통이 있습니다.

00:27:25.992 --> 00:27:32.333

전부 어디에 참여했다?

00:27:32.433 --> 00:27:34.862

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했다.

00:27:34.962 --> 00:27:39.226

이런 특징이 있는 거지.

00:27:39.326 --> 00:27:41.386

대한매일신보는 최다
독자층 중요하고요.

00:27:41.486 --> 00:27:54.719

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
이렇게 타임라인이 흘러가면

00:27:54.819 --> 00:27:58.073

우리 민족 신문들이 있는 거죠.

00:27:58.173 --> 00:28:00.536

구한말이야.

00:28:01.621 --> 00:28:05.279

가장 대표적인 신문들,
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니다.

00:28:05.379 --> 00:28:12.653

보시면, 제국신문이 있었고
그다음에 황성신문.

00:28:12.753 --> 00:28:19.219

만세보도 있고 대한매일신보,
이런 것들이 있었죠.

00:28:19.319 --> 00:28:21.349

그러면 이 민족신문이었기 때문에

00:28:21.449 --> 00:28:26.578

일본 애들이 이것을 을사늑약
이후에 탄압하고 싶었을 거야.

00:28:26.678 --> 00:28:30.488

그래서 이런 신문들을
검열하고 삭제하고

00:28:30.588 --> 00:28:33.770

정지시킬 수 있는 법령을
하나 만듭니다.

00:28:33.870 --> 00:28:43.814

그 법령이 신문지법이었어요.

00:28:43.914 --> 00:28:48.809

이게 언제 가동이
되냐면, 1907년이야.

00:28:48.909 --> 00:28:52.435

이걸로 검열, 삭제, 정간
다 가능했다는 거죠.

00:28:52.535 --> 00:28:55.010

탄압한 거야.

00:28:55.110 --> 00:29:00.315
탄압을 했는데 뭐는 걸려들었냐,
제국신문 걸려들입니다.

00:29:00.415 --> 00:29:04.072
그리고 황성신문, 만세보 다
걸려들어요, 이 신문지 법에.

00:29:04.172 --> 00:29:05.494
그래서 탄압을 당한 거야.

00:29:05.594 --> 00:29:08.048
그런데 이 대한매일신보 있지.

00:29:08.148 --> 00:29:10.423
이거는 통과해.

00:29:10.523 --> 00:29:12.096
신문지법에 해당이 없습니다.

00:29:12.196 --> 00:29:22.212
왜냐하면, 신문지법의 내용이
뭐냐,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은

00:29:22.312 --> 00:29:24.629
검열, 삭제, 정간할
수 있다는 거야.

00:29:24.729 --> 00:29:25.683
신문지법 자체가.

00:29:25.783 --> 00:29:27.331
조선인이 발행하면.

00:29:27.431 --> 00:29:31.517
그런데 대한매일신보는
누가 발행했습니까?

00:29:31.617 --> 00:29:33.434
영국인이 발행했어요.

00:29:33.534 --> 00:29:34.800
그러니까 빠져나왔지.

00:29:34.900 --> 00:29:35.713
열 받은 거예요.

00:29:35.813 --> 00:29:41.275
그래서 신문지법을 개정한 거야.

00:29:41.375 --> 00:29:43.757
일본 애들이 꿈수를 또 씹니다.

00:29:43.857 --> 00:29:48.959
개정해서 뭐로 바꿨냐면,
예전에는 조선인이었는데

00:29:49.059 --> 00:29:56.250
이제는 조선 내에서
발행하는 신문은~.

00:29:56.350 --> 00:29:57.786

이렇게 가버린 거야.

00:29:57.886 --> 00:30:00.017

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도
걸려든 거죠.

00:30:00.117 --> 00:30:02.164

그리고 베텔을 추방시켜버린 거야.

00:30:02.264 --> 00:30:14.351

그리고 1910년이 되면 이 모든
신문이 전부 없어지게 된 거야.

00:30:14.451 --> 00:30:18.919

일제강점기로 오게 되면서
다 폐간당하게 됩니다.

00:30:19.019 --> 00:30:26.231

물론 대한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에서
총독부의 기관지로 이용을 하기도 해요.

00:30:26.331 --> 00:30:29.574

그래서 1910년대는
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

00:30:29.674 --> 00:30:33.015

이 모든 신문이 다 사라졌다,
이렇게 보면 돼요.

00:30:33.115 --> 00:30:36.881

그러면 언제 다시 신문들이
만들어졌냐, 1920년이야.

00:30:36.981 --> 00:30:44.154

1920년에 조선일보,
동아일보가 만들어집니다.

00:30:44.254 --> 00:30:47.767

조선, 동아일보 이렇게 만들어져요.

00:30:47.867 --> 00:30:50.660

그런데 여러분, 지금의
조선일보가 아니었고요.

00:30:50.760 --> 00:30:52.873

그다음에 지금의 동아일보는
아니었습니다.

00:30:52.973 --> 00:30:54.373

원래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.

00:30:54.473 --> 00:30:59.312

지금 계속 가는 사람들은
이거를 인수받은 사람들이야.

00:30:59.412 --> 00:31:02.450

그래서 신문지법 기억해야 돼요.

00:31:02.550 --> 00:31:04.732

그다음에 근대 교육과 학문

보급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31:04.832 --> 00:31:07.889

근대 교육의 시작에서는
원산학사가 있어요.

00:31:07.989 --> 00:31:09.769

이 원산학사 별표 들어와야 돼.

00:31:09.869 --> 00:31:14.349

최초의 사립 근대 교육기구야.

00:31:14.449 --> 00:31:18.114

누가 만들었는가,
덕원 주민들이 만듭니다.

00:31:18.214 --> 00:31:20.423

함경도 덕원 주민들.

00:31:20.523 --> 00:31:23.940

주민들이 이런 관료와
함작해서 만들었고요.

00:31:24.040 --> 00:31:25.311

최초의 사립학교였다.

00:31:25.411 --> 00:31:30.576

그러면 주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에
입학자격은 별거 없었다는 거야.

00:31:30.676 --> 00:31:35.850

일반 평민의 자식들, 서민의
자식들도 그냥 들어올 수 있었다.

00:31:35.950 --> 00:31:36.960

원산학사입니다.

00:31:37.060 --> 00:31:43.438

그리고 동문학은 국가에서 만든
건데 외국어 교육기구입니다.

00:31:43.538 --> 00:31:45.120

통역기구 국가에서 만들고.

00:31:45.220 --> 00:31:47.891

그다음에 육영공원.

00:31:47.991 --> 00:31:52.378

앞서 원산학사는 사립이었어.

00:31:52.478 --> 00:31:55.706

그러면 뭐도 있어?
이게 관립학교도 있는 거야.

00:31:55.806 --> 00:31:56.838

국가에서 만든 거죠.

00:31:56.938 --> 00:31:58.532

그게 육영공원입니다.

00:31:58.632 --> 00:32:02.396

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
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.

00:32:02.496 --> 00:32:08.394
상류층 자체들을 교육시켰다는 거죠.

00:32:08.494 --> 00:32:13.031
육영공원 2회 졸업생이 누구냐,
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죠.

00:32:13.131 --> 00:32:15.130
이완용입니다.

00:32:15.230 --> 00:32:19.301
이런 애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라
팔아먹는 데 앞장을 서는 거죠.

00:32:19.401 --> 00:32:26.031
원산학사, 육영공원 연도도
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32:26.131 --> 00:32:30.517
중요하고, 그다음에 근대 교육
제도의 발전 보면 이런 거 있어.

00:32:30.617 --> 00:32:31.813
교육입국 조서 반포하죠.

00:32:31.913 --> 00:32:38.409
이게 갑오개혁 때 발표를 하고.

00:32:38.509 --> 00:32:41.128
교육은 나라의 근본이니까
학교를 막 만들었어요.

00:32:41.228 --> 00:32:42.646
그런데 선생님들이 없네?

00:32:42.746 --> 00:32:46.029
그래서 만든 게 또 뭐다?
한성사범학교.

00:32:46.129 --> 00:32:49.209
이거는 선생님을 배출하는
기구가 되겠죠.

00:32:49.309 --> 00:32:51.525
그리고 교과서도 만들고요.

00:32:51.625 --> 00:32:53.892
찬양회 같은 것도 조직이 되는데

00:32:53.992 --> 00:33:00.856
찬양회는 1898년에 만들어지는
여성단체가 됩니다.

00:33:00.956 --> 00:33:04.752
여기서 여학교를 만들기도 해.

00:33:04.852 --> 00:33:07.526
순성여학교라고 하는

데 필요 없습니다.

00:33:07.626 --> 00:33:10.070
여학교,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.

00:33:10.202 --> 00:33:13.003
의미 없어요, 그냥
보기만 하면 되고.

00:33:13.103 --> 00:33:19.093
그다음에 사립학교 보면 이렇게 흥화,
보성, 양정의숙, 숙명.

00:33:19.193 --> 00:33:22.821
대성, 오산은 누가 만든 거니?
신민회에서 만든 거였지.

00:33:22.921 --> 00:33:25.559
신민회의 활동이었다.

00:33:25.659 --> 00:33:30.523
이런 민족학교들이
계속 만들어집니다.

00:33:30.623 --> 00:33:33.553
그다음에 국학의 연구와
관련해서 보겠습니다.

00:33:33.700 --> 00:33:39.763
여러분, 국학 하면 국학은
우리의 학문을 의미합니다.

00:33:39.863 --> 00:33:42.980
먼저 우리의 학문이라는
것은 거의 두 개뿐 없어.

00:33:43.080 --> 00:33:45.841
국어와 역사입니다.

00:33:45.941 --> 00:33:49.063
국어와 역사에 관한 연구가
계속 진행이 되는데

00:33:49.163 --> 00:33:54.520
먼저 국어 연구와 관련해서는
국한문 혼용체가 보급된다.

00:33:54.620 --> 00:33:57.739
국한문이 뭐냐면, 예전 신문 있지.

00:33:57.839 --> 00:34:00.630
완전 옛날 신문 보면 뭐가 있냐면,

00:34:00.730 --> 00:34:06.225
쭉 한글로 가다가 중요한 단어에는
한문, 이렇게 적혀있어요.

00:34:06.325 --> 00:34:07.781
또 가다가 한문, 이렇게.

00:34:07.881 --> 00:34:09.846

이게 국한문 혼용체예요.

00:34:09.946 --> 00:34:14.359
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문을 알아야
예전 신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.

00:34:14.459 --> 00:34:15.934
그런데 지금 신문은?

00:34:16.034 --> 00:34:21.286
지금은 종이 신문을 잘 보지도 않지만
전부 한글로 되어있죠.

00:34:21.386 --> 00:34:24.946
그런데 예전에는 전부
이렇게 되어있었어.

00:34:25.046 --> 00:34:29.111
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한문을
모르면 신문 잘 못 읽었습니다.

00:34:29.211 --> 00:34:33.614
그래서 한문 교육이
되게 발전되어있었지.

00:34:33.714 --> 00:34:38.655
그래서 이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
국한문 혼용체가 보급됩니다.

00:34:38.755 --> 00:34:43.032
유길준, 이 사람도
꼭 기억해야 돼요.

00:34:43.132 --> 00:34:50.869
이 사람은 어디로 갔던 사람이나면,
보빙사 따라갔던 사람이야.

00:34:51.728 --> 00:34:52.883
보빙사가 뭐더라?

00:34:52.983 --> 00:34:57.500
조미 수호통상조약체결 이후에
미국에 보내진 사절단이었지.

00:34:57.600 --> 00:35:02.196
나머지는 돌아왔는데 유길준은
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넌니다.

00:35:02.296 --> 00:35:07.165
그래서 유럽으로 가.

00:35:07.265 --> 00:35:13.619
가서 프랑스도 보고 네덜란드도
보고 다 봤던 사람이에요.

00:35:13.719 --> 00:35:16.331
그리고 유럽에서 귀국합니다.

00:35:16.431 --> 00:35:18.719
다시 돌아온 거지.

00:35:18.819 --> 00:35:23.840

귀국했는데 바로 감옥으로
고고씽 한 거죠.

00:35:23.940 --> 00:35:28.107

왜냐하면, 귀국했던 시점에
갑신정변이 일어났거든.

00:35:28.207 --> 00:35:31.649

유길준 친구들이 김옥균,
박영효 이런 사람들인데

00:35:31.749 --> 00:35:34.950

이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키고
튀어버렸단 말이야.

00:35:35.050 --> 00:35:38.048

그래서 유길준이 귀국을 했는데
영문도 모르고 있다가

00:35:38.148 --> 00:35:40.162

그냥 감옥에 이렇게 들어갑니다.

00:35:40.262 --> 00:35:47.714

감옥에서 자기가 서양 가서 보고
느낀 거를 쓴 게 서유견문이죠.

00:35:47.814 --> 00:35:55.285

그런데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대단한
친일파로 변절을 하는 사람이에요.

00:35:55.385 --> 00:36:03.662

그래서 이런 친일파는 우리가 꼭
독립운동가 못지않게 알아두셔야 됩니다.

00:36:03.762 --> 00:36:07.426

그다음에 순 한글
신문이 보급되었다.

00:36:07.526 --> 00:36:14.803

순 한글 뭐 있었니? 이종일이
만든 제국신문이 있었죠.

00:36:14.903 --> 00:36:17.504

그다음에 국문 연구소가
만들어집니다.

00:36:17.604 --> 00:36:19.781

국문은 우리의 문자가 되겠죠.

00:36:19.881 --> 00:36:22.773

주시경 선생과 지석영 선생이고요.

00:36:22.873 --> 00:36:28.012

여기서 뭘 편찬하냐면,
주시경의 국어문법입니다.

00:36:28.112 --> 00:36:29.717

문법이 만들어졌다.

00:36:29.817 --> 00:36:34.228

우리나라 말과 관련된
단체가 되겠죠.

00:36:34.328 --> 00:36:35.668
그런데 이거 봐 봐.

00:36:35.768 --> 00:36:39.317
1907년에는 국문 연구소였어.

00:36:39.417 --> 00:36:44.386
그런데 일제강점기로 넘어갑니다.

00:36:44.486 --> 00:36:48.848
그러면 이게 만들어진다.

00:36:48.948 --> 00:36:51.656
이름 자체가 달라져요.

00:36:51.756 --> 00:36:54.655
조선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.

00:36:54.755 --> 00:36:55.584
왜인 줄 아니?

00:36:55.684 --> 00:37:00.728
일제강점기에도 국어라는
표현이 있었습니다.

00:37:00.828 --> 00:37:08.768
일제강점기에 국어는 한글이
아니고 일본어입니다.

00:37:08.868 --> 00:37:12.392
우리는 알고 보면 외국어였어요.

00:37:12.492 --> 00:37:17.660
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나타났던
게 우리가 배우겠지만

00:37:17.760 --> 00:37:20.767
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.

00:37:20.867 --> 00:37:23.984
그다음에 조선어학회라는
단체가 있어요.

00:37:24.084 --> 00:37:28.352
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 대사전을
만들려고 했거든, 우리말 큰사전을.

00:37:28.452 --> 00:37:30.353
그런데 실패로 끝이 나기도 합니다.

00:37:30.453 --> 00:37:31.721
이름이 바뀌는 거야.

00:37:31.821 --> 00:37:35.666
국문이 있다는 것은 아직
일제강점기 전이었다.

00:37:35.766 --> 00:37:38.086

일제강점기에는 뭐라고 표현한다?

00:37:38.186 --> 00:37:41.631
조선어라고 표현한다.

00:37:41.731 --> 00:37:44.256
이게 국어 연구와 관련된 내용.

00:37:44.356 --> 00:37:48.475
그다음에 국사 연구죠.

00:37:48.575 --> 00:37:52.198
이 국사와 관련해서는
영웅들의 전기를 보급합니다.

00:37:52.298 --> 00:37:55.861
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
선생과 박은식 선생입니다.

00:37:55.961 --> 00:37:56.507
볼까요?

00:37:56.607 --> 00:37:59.421
이순신, 을지문덕,
강감찬, 최도통.

00:37:59.521 --> 00:38:03.867
박은식은 연개소문, 안중근,
이준전, 동명성왕.

00:38:03.967 --> 00:38:07.240
이게 알고 보면 전부 영웅들입니다.

00:38:07.340 --> 00:38:12.461
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,
일제강점기로 가기 직전입니다.

00:38:12.561 --> 00:38:15.749
우리가 완전히 식민화되기
직전이었어요.

00:38:15.849 --> 00:38:23.245
그러면 우리 민족이 바보 같고 되게
무능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.

00:38:23.345 --> 00:38:27.175
그래서 신채호 선생과 박은식
선생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.

00:38:27.275 --> 00:38:32.441
우리는 이렇게 무능하고 바보스러운
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죠.

00:38:32.541 --> 00:38:36.286
우리들의 영웅 일대기를
계속 보급하면서

00:38:36.386 --> 00:38:38.735
우리의 자존감을
높이려고 했던 거죠.

00:38:38.835 --> 00:38:42.067

나라가 어려울 때
역사를 찾는 거예요.

00:38:42.167 --> 00:38:45.279

그다음에 외국 역사서도
보급이 됩니다.

00:38:45.379 --> 00:38:50.636

이 외국 역사서 보면 미국 독립사,
베트남과 관련돼서 월남 망국사.

00:38:50.736 --> 00:38:52.760

그다음에 이태리 건국, 이런 것들.

00:38:52.860 --> 00:38:57.284

그래서 외국 서적들을
계속 번역을 한다는 거.

00:38:57.384 --> 00:39:02.923

그다음에 신채호 선생의
독사신문이 연재되는데

00:39:03.023 --> 00:39:05.732

이 독사신문은 1908년이야.

00:39:05.832 --> 00:39:07.668

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.

00:39:07.768 --> 00:39:14.155

그러면 무슨 뜻이냐,
대한매일신보의 연재가 되는데요.

00:39:14.255 --> 00:39:16.933

역사 서술의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.

00:39:17.033 --> 00:39:19.798

이거는 이런 식이야.

00:39:19.898 --> 00:39:26.147

중국, 미국, 영국, 러시아.

00:39:26.292 --> 00:39:31.605

그리고 한국, 조선이죠?
이렇게 되어있어요.

00:39:31.705 --> 00:39:34.576

중국의 역사는 누가
서술하는 게 맞니?

00:39:34.676 --> 00:39:37.850

그들이 서술하는 거 아니니,
중국 애들이 서술하고요.

00:39:37.950 --> 00:39:40.357

미국의 역사는?
그래, 자기들이 하고.

00:39:40.457 --> 00:39:42.316

영국도 너희가 하고
러시아도 너희가 하는 거다.

00:39:42.416 --> 00:39:45.098

그러면 우리의 역사는
일본이 해주는 게 아니라

00:39:45.198 --> 00:39:47.792

우리가 만드는 거다, 라는 거예요.

00:39:47.892 --> 00:39:56.363

역사 서술의 주체는 그 나라 그
민족이다, 라는 게 독사신문입니다.

00:39:56.463 --> 00:40:00.114

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우리 민족
중심으로 서술되어야 된다.

00:40:00.214 --> 00:40:04.783

이거를 우리는 민족주의
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해.

00:40:04.883 --> 00:40:11.463

민족주의 사학이 독사신문에서
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.

00:40:11.563 --> 00:40:15.022

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니?

00:40:15.122 --> 00:40:17.713

한국사를 배우고 있는 거야, 맞니?

00:40:17.813 --> 00:40:23.472

그런데 한국사로 바뀌기
전에는 뭐였니?

00:40:23.572 --> 00:40:25.531

국사였어요.

00:40:25.631 --> 00:40:26.786

많이 들어봤지?

00:40:26.886 --> 00:40:30.819

국사에서 지금 교과 과정이
한국사로 바뀌었습니다.

00:40:30.919 --> 00:40:34.024

무슨 의미가 있을까?

00:40:34.124 --> 00:40:35.441

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?

00:40:35.541 --> 00:40:39.298

우리는 그냥 한국사, 암기할
것만 많아, 이렇게 가잖아.

00:40:39.398 --> 00:40:41.202

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.

00:40:41.302 --> 00:40:46.088

국사는 민족주의야.

00:40:46.188 --> 00:40:48.814

우리의 역사라는 뜻이에요.

00:40:48.914 --> 00:40:52.541

그런데 이 한국사는
어떤 의미가 있냐면,

00:40:52.641 --> 00:40:54.187

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까?

00:40:54.287 --> 00:41:07.111

미국사, 일본사, 중국사,
영국사, 한국사 어때?

00:41:07.211 --> 00:41:09.723

객관적인 의미예요.

00:41:09.823 --> 00:41:14.891

민족주의를 빼버린 게 한국사야.

00:41:14.991 --> 00:41:16.165

뭐가 좋은진 모르겠습니다.

00:41:16.265 --> 00:41:21.097

그런데 저는 솔직히 민족주의 이쪽이
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해.

00:41:21.197 --> 00:41:22.058

제 입장이야.

00:41:22.158 --> 00:41:23.801

이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.

00:41:23.901 --> 00:41:29.224

이제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
세계 역사의 하나로써

00:41:29.324 --> 00:41:32.280

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게
한국사의 의미입니다.

00:41:32.380 --> 00:41:37.199

반면에 국사는 민족주의를
더욱더 강조하는 거죠.

00:41:37.299 --> 00:41:43.156

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를 가지고 많이
싸우잖아요, 정치라든지 이런 데서.

00:41:43.256 --> 00:41:45.211

이런 의미들이 다 있는 거야.

00:41:45.311 --> 00:41:51.584

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독사신문을
저술하기도 했다는 거.

00:41:51.684 --> 00:41:53.874

그다음에 문예와 종교의
새 경향인데요.

00:41:53.974 --> 00:41:55.666

이건 찰떡찰떡하게
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41:55.766 --> 00:41:56.668

신소설 나와요.

00:41:56.768 --> 00:41:59.553

이인직의 혈의 누.

00:41:59.653 --> 00:42:01.784

새로운 형식의 소설이 되겠고요.

00:42:01.884 --> 00:42:08.685

그다음에 이 사람도

잘 알아둬야 돼요.

00:42:08.785 --> 00:42:13.788

누구의 부하격이냐면,

이완용의 부하격입니다.

00:42:13.888 --> 00:42:18.048

그다음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.

00:42:18.148 --> 00:42:20.535

금수가 뭘니까?

짐승을 이야기하죠.

00:42:20.635 --> 00:42:23.867

여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이렇게

나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.

00:42:23.967 --> 00:42:26.894

그래서 지금의 정세를

비판하는 거죠.

00:42:26.994 --> 00:42:29.510

그다음에 신체시 잘

알아둬야 하는 사람이죠?

00:42:29.610 --> 00:42:34.894

신체시, 새로운 형태의

시 해에게서 소년에게.

00:42:34.994 --> 00:42:38.764

최남선은 또 누구다?

00:42:38.883 --> 00:42:41.567

변절자다.

00:42:41.667 --> 00:42:49.568

그다음에 이런 외국 문학들이

구한말에 번역이 되기도 했다는 거.

00:42:49.668 --> 00:42:53.510

그다음에 예술과 관련해서는

음악 됐고 창가.

00:42:53.610 --> 00:42:59.350

창가가 뭐냐면, 서양의

유명한 곡이 있지.

00:42:59.450 --> 00:43:05.734

그러면 여기에 가사를 우리의
가사로 붙인 거예요.

00:43:05.834 --> 00:43:06.774
이런 것들 있잖아.

00:43:06.874 --> 00:43:10.123
석별의 정, 오랫동안 사귀었던
정든 내 친구~ 그거 있잖아.

00:43:10.223 --> 00:43:13.155
그 곡에 우리의 가사를 붙인 거야.

00:43:13.255 --> 00:43:15.808
그런 것들이 창가가 되겠습니다.

00:43:15.908 --> 00:43:19.070
또한 연극이야.

00:43:19.170 --> 00:43:25.003
원각사, 연극을 공연할 수
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?

00:43:25.103 --> 00:43:26.918
극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, 공연장.

00:43:27.018 --> 00:43:30.367
그게 원각사가 되겠죠.

00:43:30.467 --> 00:43:32.809
이게 연극 공연 극장이다.

00:43:32.909 --> 00:43:37.145
여기서 은세계 치악산이 공연됩니다.

00:43:37.245 --> 00:43:39.996
그런데 이 은세계를 쓴
사람이 누군 줄 아니?

00:43:40.096 --> 00:43:43.464
아까 혈의 누, 이인직이야.

00:43:43.564 --> 00:43:45.153
뭔가 이상하죠?

00:43:45.253 --> 00:43:48.219
우리는 연극이란 거
자체가 없었어요.

00:43:48.319 --> 00:43:51.155
지금 보면 이게
1908년에 만들어졌다.

00:43:51.255 --> 00:43:52.093
잘 봐.

00:43:52.193 --> 00:43:53.653
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죠.

00:43:53.753 --> 00:43:55.402
그다음에 극장이 만들어졌어.

00:43:55.502 --> 00:44:02.629
여기서 친일행적을 하는 사람이
만든 작품이 막 공연이 되는 거야.

00:44:03.946 --> 00:44:05.515
구한말에 이런 연극.

00:44:05.615 --> 00:44:09.611
다른 말로 신극이라고 이야기를
하는데 이 신극 운동은

00:44:09.711 --> 00:44:12.062
전혀 민족주의와는 관련 없습니다.

00:44:12.162 --> 00:44:12.909
전혀 관련 없어.

00:44:13.009 --> 00:44:16.701
오히려 일본의 홍보수단이었어요.

00:44:16.801 --> 00:44:22.526
새로운 문물을 들여와서 일본이 대단한
국가이다, 일본이 잘해주고 있다.

00:44:22.626 --> 00:44:28.420
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
전락했던 게 이런 신극이야.

00:44:28.520 --> 00:44:30.798
다른 말로 연극이 되겠습니다.

00:44:30.898 --> 00:44:33.111
그래서 민족주의와는
전혀 관련 없는 거야.

00:44:33.211 --> 00:44:35.219
그냥 일본 애들의
홍보 수단이었습니다.

00:44:35.319 --> 00:44:40.171
그래서 나중에 원각사는 결국
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.

00:44:40.271 --> 00:44:42.149
그다음에 우리는 여전히
뭐 하고 있다?

00:44:42.249 --> 00:44:46.891
판소리, 가면극 이런
것들이 우리 거죠.

00:44:46.991 --> 00:44:48.947
그다음에 미술 이렇게 있고요.

00:44:49.047 --> 00:44:50.956
만평도 들어오게 된다.

00:44:51.056 --> 00:44:53.720
이렇게 보면 돼.

00:44:53.820 --> 00:44:54.873
그다음에 종교입니다.

00:44:54.973 --> 00:44:58.614
이 종교와 관련돼서 마지막이
될 텐데 천주교가 있죠.

00:44:58.714 --> 00:45:02.832
천주교 같은 경우는
약현성당이 있었잖아.

00:45:02.932 --> 00:45:03.923
이런 학교도 만들고요.

00:45:04.023 --> 00:45:08.659
특히나 천주교에서는 이런
경향신문, 신문도 만듭니다.

00:45:08.759 --> 00:45:10.591
천주교 기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

00:45:10.691 --> 00:45:12.166
천주교에서 만든 경향신문.

00:45:12.266 --> 00:45:15.352
지금도 경향신문 있잖아,
그거랑은 달라.

00:45:15.452 --> 00:45:17.782
그다음에 의민단을 조직하는데

00:45:17.882 --> 00:45:24.933
이 의민단은 종교 단체에서는
조금 다른 면이 무장단체야.

00:45:25.033 --> 00:45:28.568
무장단체를 조직하기도 한다는 거.

00:45:28.668 --> 00:45:29.593
그다음에 개신교.

00:45:29.693 --> 00:45:35.355
이 개신교는 어떤 게 있었냐면,
이게 성당이고 이걸 교회잖아.

00:45:35.455 --> 00:45:38.978
개신교 선교사들이 구한말에
많이 들어옵니다.

00:45:39.078 --> 00:45:41.932
그리고 깜짝 놀라버려요.

00:45:42.032 --> 00:45:47.033
아니, 조선이라는 이 작은 국가에서
천주교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

00:45:47.133 --> 00:45:52.804
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
공격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는 거야.

00:45:52.904 --> 00:46:02.679

그 대표적인 게 학교나 병원,
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

00:46:04.139 --> 00:46:13.350
그래서 학교 보면 개신교에서 만든
진짜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.

00:46:13.436 --> 00:46:16.177
정신, 경신, 이런
것들 다 있어요.

00:46:16.277 --> 00:46:22.130
그래서 이런 교육이나
의료를 중심으로 해서

00:46:22.230 --> 00:46:25.229
선교 활동까지 같이 했다는 거죠.

00:46:25.329 --> 00:46:27.917
그리고 이런 교육회는 됐고요.

00:46:28.017 --> 00:46:30.328
그래서 학교, 병원,
이렇게 가면 되겠고.

00:46:30.428 --> 00:46:31.645
그다음에 천도교.

00:46:31.745 --> 00:46:33.182
아까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죠?

00:46:33.282 --> 00:46:35.277
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했다.

00:46:35.377 --> 00:46:37.885
그리고 천도교의 기관지 만세보.

00:46:37.985 --> 00:46:40.222
그다음에 대종교.

00:46:40.322 --> 00:46:44.889
여러분, 이 대종교는 이런
수많은 종교 중에서도

00:46:44.989 --> 00:46:49.933
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
탄압당하는 게 대종교입니다.

00:46:50.033 --> 00:46:51.938
그러면 누구를 믿었길래.

00:46:52.038 --> 00:46:54.951
이 대종교는 우리 민족 신앙이에요.

00:46:55.051 --> 00:46:56.113
누구를 숭배했다?

00:46:56.213 --> 00:46:58.851
단군 신앙입니다.

00:46:59.654 --> 00:47:00.688

단군이야.

00:47:00.788 --> 00:47:03.248

전형적인 우리의 민족
종교가 되겠죠.

00:47:03.348 --> 00:47:05.858

그래서 크게 탄압을 당합니다.

00:47:05.958 --> 00:47:07.651

탄압당해서 어떻게?

00:47:07.751 --> 00:47:09.102

못 버티는 거예요.

00:47:09.202 --> 00:47:10.789

해외로 올라가게 됩니다.

00:47:10.889 --> 00:47:17.754

간도 지방으로 넘어가서
증광단이라는 걸 조직해요.

00:47:17.854 --> 00:47:19.831

이 증광단에서 뭘 한 거야?

00:47:19.931 --> 00:47:25.302

이게 중심이 돼서 이게 나중에
북로 군정서군으로 바뀌어요.

00:47:25.402 --> 00:47:26.907

그게 김좌진 장군이야.

00:47:27.007 --> 00:47:31.591

김좌진의 청산리 대첩을
주도했던 게 대종교입니다.

00:47:31.691 --> 00:47:35.519

민족신앙이었죠, 단군.

00:47:35.619 --> 00:47:38.171

지금의 초등학교는
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

00:47:38.271 --> 00:47:40.063

동상들이 있었죠.

00:47:40.163 --> 00:47:44.797

선생님이 나온 초등학교에는
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.

00:47:44.897 --> 00:47:48.114

이순신 동상이 큰 칼
차면서 이렇게 있고

00:47:48.214 --> 00:47:54.206

그다음에 밑에는
거북선이 작게 있었어.

00:47:54.306 --> 00:47:57.537

그리고 좀 많은 게 세종대왕.

00:47:57.637 --> 00:48:03.433

제일 많은 게 이순신 아니면
세종대왕 동상들이 있는 거야.

00:48:03.533 --> 00:48:09.024

그런데 중간중간 단군상이
있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.

00:48:09.124 --> 00:48:13.464

단군상이 이렇게 동상으로
세워진 학교들도 있었어.

00:48:13.564 --> 00:48:15.446

괜찮지 않습니까?

00:48:15.546 --> 00:48:18.402

알고 보면 단군은 우리만
아는 거 아니니.

00:48:18.502 --> 00:48:23.043

그런데 이 동상에서 단군의
목이 막 잘려나갑니다.

00:48:23.143 --> 00:48:28.821

그리고 빨긴 페인트로 부어버리고
그래서 되게 수난을 겪어요.

00:48:28.921 --> 00:48:30.058

옛날이야기 아닙니다.

00:48:30.158 --> 00:48:33.488

얼마 전 이야기예요.

00:48:33.588 --> 00:48:41.452

뭐냐면, 어떤 종교 단체에서 우상
숭배라고 하면서 목을 자른 거지.

00:48:41.552 --> 00:48:43.371

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.

00:48:43.471 --> 00:48:48.146

그런데 이런 단군 신앙이 대종교인데
일제 강점기에 그렇게 탄압을 당했고

00:48:48.246 --> 00:48:52.421

독립운동에도 앞장을 선 게
대종교였다, 이렇게 보면 돼.

00:48:52.521 --> 00:48:54.264

그다음에 유교, 불교가 있는데요.

00:48:54.364 --> 00:48:56.991

먼저 쉬운 불교부터 볼게요.

00:48:57.091 --> 00:48:59.267

만해 한용운 선생이 있죠.

00:48:59.367 --> 00:49:02.382

불교유신론입니다.

00:49:02.482 --> 00:49:06.520

불교 개혁해야 된다,
라는 건데 어떻게 됐냐,

00:49:06.620 --> 00:49:10.367

1910년대 일제강점
초반에 이게 일어난다.

00:49:10.467 --> 00:49:15.414

사찰령이라는 게 있어요, 적지 마.

00:49:15.514 --> 00:49:18.510

사찰이 불교 사원을 이야기하죠.

00:49:18.610 --> 00:49:22.061

하나의 불교 사원에서
최고 짱이 누구입니까?

00:49:22.161 --> 00:49:25.445

주지 스님이지.

00:49:25.545 --> 00:49:32.218

주지 스님이 되는 자는 반드시 조선
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.

00:49:32.318 --> 00:49:36.584

그러면 조선 총독에서 허가해주지
않으면 주지 스님이 안 되는 거야.

00:49:36.684 --> 00:49:41.678

그러면 조선 총독에서 허가해준 사람이
주지 스님이니까 전부 뭘니까?

00:49:41.778 --> 00:49:45.332

친일 주지들이었습니다.

00:49:45.432 --> 00:49:47.201

그럴 수밖에 없잖아.

00:49:47.301 --> 00:49:52.764

그래서 민중들이 불교를
불신하기 시작합니다.

00:49:52.864 --> 00:49:56.525

그래서 한용운 선생은
독립운동가이기도 하잖아요.

00:49:56.625 --> 00:49:58.011

불교 개혁해야 된다.

00:49:58.111 --> 00:50:00.299

그게 불교 유신론이야.

00:50:00.399 --> 00:50:01.463

실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

00:50:01.563 --> 00:50:04.414

한용운 선생이 지금
스님들이 지나다니고

00:50:04.514 --> 00:50:08.377

불교를 바라보는 민중의

입장에서는 토를 하려고 한다.

00:50:08.477 --> 00:50:09.930
토악질을 하려고 한다.

00:50:10.030 --> 00:50:13.553
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
불교를 개혁해야 되고

00:50:13.653 --> 00:50:19.279
그리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
교육에 매진해야 된다.

00:50:19.379 --> 00:50:23.132
똑똑한 젊은 승려들을 뽑아서
사범교육을 시키자.

00:50:23.232 --> 00:50:25.970
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
민족교육을 시키자.

00:50:26.070 --> 00:50:28.847
이렇게 개혁을 해야 민중들이

00:50:28.947 --> 00:50:32.450
다시 올 것이다, 라고 주장했던
게 한용운 선생입니다.

00:50:32.550 --> 00:50:34.491
불교유신론입니다.

00:50:34.591 --> 00:50:38.334
그리고 유교 쪽에서는
박은식 선생입니다.

00:50:38.434 --> 00:50:42.479
박은식 선생은
역사학자이자 유학자야.

00:50:42.579 --> 00:50:48.054
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
2대 대통령이었습니다.

00:50:48.154 --> 00:50:57.378
유교구신론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
구한말에 일제강점기로 가기 직전인데

00:50:57.478 --> 00:50:58.862
뭐 때문에 무너졌는가.

00:50:58.962 --> 00:51:01.476
여기서 찾은 거예요.

00:51:02.649 --> 00:51:04.134
성리학.

00:51:04.234 --> 00:51:08.731
이놈의 성리학 때문에 우리가 지금
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.

00:51:08.831 --> 00:51:13.776

그러면 보다 더 실천적인
학문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.

00:51:13.876 --> 00:51:15.934
유교를 또 바꾸자는 거예요.

00:51:16.034 --> 00:51:17.090
그게 유교구신론.

00:51:17.190 --> 00:51:18.833
성리학이 아니라 뭐로 가자?

00:51:18.933 --> 00:51:21.732
박은식 선생은 성리학자가 아니야.

00:51:21.832 --> 00:51:23.414
양명학자입니다.

00:51:23.514 --> 00:51:24.421
지행합일.

00:51:24.521 --> 00:51:25.880
실천하자는 거죠.

00:51:25.980 --> 00:51:32.391
그래서 뭘 강조했냐면, 대동사상과
대동교를 창시하기도 합니다.

00:51:32.491 --> 00:51:34.847
보다 더 실천적인 유교를
원했던 거예요.

00:51:34.947 --> 00:51:37.824
그래서 박은식의 유교구신론.

00:51:37.924 --> 00:51:42.314
불교는 한용운 선생의
불교유신론이 있는 거죠.

00:51:42.414 --> 00:51:44.836
앞으로도 한용운 선생은
계속 나오겠죠.

00:51:44.936 --> 00:51:47.106
뭐에서 나오니? 임의 침묵.

00:51:47.206 --> 00:51:51.147
이런 것에서 나오겠죠.

00:51:51.247 --> 00:51:56.262
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
이렇게 국학도 살펴봤고요.

00:51:56.362 --> 00:51:57.900
그다음에 문화의 새 경향.

00:51:58.000 --> 00:52:02.651
그리고 근대문물까지 살펴봤습니다.

00:52:02.751 --> 00:52:04.272
내용은 좀 많지.

00:52:04.372 --> 00:52:06.469
그래도 한 번씩은 알아두면

00:52:06.569 --> 00:52:09.358
다 빠가 되고 살이 되지
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

00:52:09.458 --> 00:52:12.529
다음 시간에 문제
한번 추려서 풀고요.

00:52:12.629 --> 00:52:15.220
그다음에 일제강점기로 넘어가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52:15.320 --> 00:52:17.267
여러분, 감사합니다.